

34장. 엘리후의 두 번째 이야기

엘리후는 둘째 이야기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이어서 욥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을 취한다.

1. 총명한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4:1-15)

입이 음식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사람의 귀는 듣는 말을 분별할 수 있다. 욥은 자기는 의롭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제거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34:5-6). 욥은 물 마시듯이 하나님을 휘방하는 말을 하고 있다(34:7-9).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한다'(15:16) 하고 비난한 것과 비슷한 표현이다.

따라서 총명한 자는 욥의 이러한 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에 따라서 보응하시고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34:11).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며 그분이 기운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죽게 된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실 뿐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주장하였다.

2. 욥이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였다고 비난함 (34:16-30)

엘리후는 다시 욥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이 정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34:17). 여호와와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바로 심판하신다. 세력 있는 자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꺾어서 공적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신다. 그분은 사특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시는 전능자시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총명한 자는 엘리후의 말을 지지할 것임 (34:31-37)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시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 욥이 회개하기를 거부하지 말고 속히 회개할 것을 권하였다(34:31-33).

엘리후는 슬기로운 자들이 모두 자기의 말을 듣고 욥이 무식하게 말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욥은 죄 위에 패역을 더하고 있으며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34:34-37).